



[산업]
SKT-삼성전자
속도 2배 빠른
'5G SA 교환기' 개발
06

[유통]
코스모코스 '비프로브'
싱가포르·대만 등
해외시장 공략



L1

소아과 의사가 만든 아기 치료식, 국민 영양간식으로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スト리

㉜ 정식품 '베지밀'

두유는 지난 몇십 년간 바쁜 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간편한 식사 대용 및 영양 간식으로 사랑 받아왔다. 주원료인 콩은 식물성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무기질 등 풍부한 영양소와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마시는 '국민 두유' 베지밀은 국내 두유시장 부동의 1위이자 두유의 시초가 된 제품이다.

◆아기 치료식으로 탄생

조창기 베지밀은 일반적인 음료가 아닌 아기들의 치료식으로 탄생했다. 베지밀의 탄생은 정식품 창립자인 의학박사 故 정재원 명예회장이 소아과 의사로 재직하던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모유와 우유를 마시고 나서 이유 없이 고통 받는 아기들이 많았다. 병명 조차 밝히지 않은 이 병으로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는 환아도 적지 않았다. 출곧이 병의 치료법을 고민하던 정명예회장은 44세의 나이에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기 위해 영국 및 미국 유학 길에 올랐다.

1964년에 정명예회장은 그 병이 유당 불내증(유당소화장애)이라는 것과 발병 원인이 모유와 우유 속 유당 성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곧바로 귀국해 본격적인 아기 치료식 개발에 나선 그가 주목한 것은 디름 아닌 '콩'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끓여주시던 중국에는 유아를 위한 3대 필수 영양소(단백질 40%, 탄수화물 35%, 지방 20%)는 풍부 하지만 문제가 되는 유당 성분은 전혀 없음을 알아낸 것이다.

정명예회장은 모유와 우유 대신 아기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2년간의 연구 끝에 1966년 콩을 갈아 만든 콩국에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강해 영양균형을 맞춘 국내 최초의 두유 개발에 성공, 발명 특허 및 영양식품 허가를 받았다. 베지밀(Vegemil)의 제품명은 식물성 밀크(Vegetable + Milk)라는 뜻으로 지었다.

베지밀은 처음에는 가내 수공업 형태로 소량 생산해 소아과에서 치료식으로 지급하다가 점점 효능이 입소문을 타며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1973년 경기도 신갈에 하루 약 20만개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준공하며 정식품을 설립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1984년에 청주에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춰 일일 250여 만개의 베지밀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건강하고 맛있는 두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제 공인 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 받은 정식품 중앙연구소에서는 두유의 영양만족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최우수 품질의 두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베지밀 전 제품에 대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으로 제품 위생과 안전성을



故 정재원 명예회장.

병 베지밀 변천사



최근 정식품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과 시니어, 임산부 등 타깃을 세분화한 제품을 출시했다. (왼쪽부터) 베지밀 건강맘, 베지밀 5060시니어 두유, 리얼 아몬드, 리얼 월넛, 리얼 코코넛.

소아과 의사 故정재원 명예회장

유당불내증 앓는 아기들 위해 개발

우유 대신 콩으로 영양균형 맞춰

베지밀A, B 비타민·무기질 풍부 임산부·어린이 위한 제품 출시도



검증받은 바 있다.

◆ 트렌드 선도&맞춤형 제품

정식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베지밀 두유의 누계 판매량은 약 150억개(팩 기준) 이상으로 이를 일렬로 세워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720번 왕복할 수 있으며 지구를 36바퀴 돌고도 남을 규모다. 원조인 '베지밀A', '베지밀B'는 콩 농축액이 아닌 순수한 콩의 속살만을 갈아 만들어 콩단백질, 필수지방산, 콩식이섬유 등 두유 본래의 좋은 영양소뿐 아니라, 비타민, 엽산,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의 영양성분이 함유돼 있어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최근에는 스테디셀러인 '베지밀A, B' 외에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과 시니어, 임산부, 어린이 등 타깃을 세분화한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두유업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4년에 출시한 '베지밀 과일이 꼭꼭 썹하는 애플 망고 두유'는 두유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라는 고정관념을 지난 소비자들에게 '상큼한 과일맛 두유', '알갱이가 썹히는 재미있는 두유'라는 호평을 받았다. 두유에 비타민 A, C, D가 풍부한 애플망고의 영양과 나타드코코(코코넛) 알갱이를 넣어 썹는 식감을 살려 짙은 품종에

게 인기를 얻으며 현재까지(2018년 10월 기준) 2000만 개 이상 판매되며 히트제품으로 등극했다.

타깃 세분화 전략의 대표 제품으로는 2017년에 출시한 '베지밀 5060 시니어 두유'가 있다. 중년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몸에 좋은 국산 검은콩과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와 시니어에게 필수인 단백질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등을 강화했다. 또한 가임기 여성부터 임신부, 수유기 엄마에게 맞춰 영양을 설계한 '베지밀 건강맘',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베지밀 어린이두유 디비치' 등도 각각 상황과 연령에 필요한 필수 영양 밸런스를 설계한 타깃 맞춤형 상품이다.

그리고 베지밀의 다양한 제품들은 현재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국, 중동 등 전 세계 17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등 우리나라보다 두유를 많이 섭취하는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가 높다.

◆ 신규 카테고리 개척

정식품은 1등 두유 브랜드 베지밀의 명성을 안주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음료 카테고리 개척에 나섰다. 올해 7월에는 웰빙과 건강 트렌드에 맞춰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한 '리얼 시리즈'를 출시하며 식물성 건강음료 라인업을 구축했다. '리얼 아몬드', '리얼 코코넛', '리얼 월넛' 총 3가지 맛으로 구성된 '리얼 시리즈'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피부미용과 노화 방지, 혈액순환 등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1일 치를 100%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리얼 아몬드'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아몬드의 풍부한 영양과 고소한 맛을 살린 식물성 건강음료로 아몬드를 통째로 갈아 넣어 진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235mL 1팩당 81kcal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용이나 아침 식사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유당이 없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리얼 코코넛'과 '리얼 월넛'은 기존 제품에 당과 칼로리를 대폭 줄여 출시했다. '리얼 코코넛'은 코코넛 본연의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한 품질에 나타드 코코 젤리로 쫀득한 식감을 더했다.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50% 줄이고 칼로리도 40% 가량 낮췄다. '리얼 월넛'은 두뇌활동에 좋은 호두를 통째로 갈아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으로 당과 칼로리를 기존 제품 대비 최대 29% 낮췄다.

정식품 관계자는 "지난 46년 동안 고품질, 고영양의 제품 생산을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이어온 것이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사랑 받아온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유 및 식물성 음료 시장을 선도하며 차별화된 맛과 한발 앞서 트렌드를 이끄는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